

# 외통위, 박진 장관 퇴장 문제 두고 개회 30분 만에 정회

2022년 국정감사 첫날인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국정감사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된 박진(66) 외교부 장관의 국정감사 퇴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개회 30분 만에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 개시와 동시에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한 박진 장관을 퇴장할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다. 박 장관의 퇴장을 여부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계속될수록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정회됐다.

첫 발언권을 얻은 이재정(48)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62) 장관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 심지어 '막말 외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도 바닥에 떨어졌다"며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고 박 장관에 대한 회의를 퇴장시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김경협(60) 민주당 의원은 "아무 일 없던 듯 앉아 국감을 진행하고, 해임 건의안을 가결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겠다는 건 외교대참사 과정에서 나타난 변명 과정에서 김은혜(51) 홍보수석이 얘기했던 국회법을 능멸하고 모욕했던 발언의 연장이다. 박 장관은 사퇴하는 게 맞고 국정감사에서 퇴장하는 게 예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석기(68)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번 해의순방에서 많은 성과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野 "윤정진 빈손 외교·막말 외교" 외교부 장관 퇴장 요구 與 "해의순방서 큰 성과... 국민들에 설명할 기회 주어제야"

를 거두고 돌아왔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 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라며 "이 자리에서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주어제야 한다. 이미 합의된 국감을 뒤집고 박 장관의 퇴장을 요구하는 건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

회,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정진석(62)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감에 출석한 박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외교부 장관하고 상대를 못하겠다면 차관에게 퇴장을 요구하는 건 법치주의에 맞게 행동해야 할 국

라고 극복하지는 게 정치 공세지 국감에 임하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의 국감 출석을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며 일부 여야 의원들 사이에선 고성까지 일어났다. 결국 윤재옥(6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이 상태로 국정감사 진행이 안 되고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기에 여야 간사와 협의하겠다"고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직전 윤재옥 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주

려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결국 입장을 따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해의순방이 '외교 대참사'였다며 주무부처 장관인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표결 직전 단체로 퇴장했고, 윤 대통령 역시 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김소진기자 hoo1006@sporbiz.co.kr

## "땅장사 한다" LH, 국감 첫날부터 집중 포화

자료부터 미비...국민주거 마련 태만 지적 토지임대부주채 재고 요청에 "땅투기" 직원 1인당 평균 성과급 1830만원

지난해 3월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의원들의 집중 질책을 받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를 비롯해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을 상대로 올해 국감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해당 기관 중 가장 많은 자료요구와 질의를 받은 곳은 LH였다.

지난 8월 김원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아직도 수장이 공석인 LH는 이광란 LH 사장대행이 대신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자료 제출부터 강하게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LH 공사가 10년 분량 전한 주택분양원이 자료와 수익 내역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주느냐. SH는 분양원이 공개하는데 왜 LH는 안하느냐"고 쓴소리를 날렸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재무제표 등을 보니 공공주택 사업 부문 관해서 프로젝트별 매출을 등을 요청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 왜 20분 이내로 줄 수 있는 자료 아니냐"며 자료를 제출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의원들은 오전 내내 LH에만 질문했다. 특히 LH가 보던 일부인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심상정 의원은 "LH가 토지임대부주채 재고 요

청 및 임대주택만 짓게 되어 있는 공공유지 분양 주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LH가 집 사만 하려는 것"이라고 물어볼었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LH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배가 났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3000억원원을 삭감했는데 LH와 상의한 것"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광란 사장 대행은 "토지임대부주채 재고 요청은 제도 미비 때문이며 지난해 당기 순이익 증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LH가 지난해 직원 땅투기 적발 이후 총체적 쇠신에 나섰음에도 아직도 혁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 2020년도 직원 성과급이 1인당 평균 1830만원, 사장은 1억1800만원 받았다"며 "모든 공기업이 윤리경영을 통해 국민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LH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을 밝히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내부 감사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LH와 관련된 의혹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LH 오사육사 매각에 대해 "지난 2020년 8월 2억원 넘게 들어 감정평가 후 매각을 결정하고도 그해 11월 돌연 매각 대신 남사시와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하기로 했다"며 매각 변경에 대해 어떤 배경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 대행은 "감정평가는 2년에 한번씩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 오리 사육이 매각이 되지 않으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 것일 뿐"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서동영기자 westeast@sporbiz.co.kr

동성제약

프리미엄 토탈 헤어 솔루션 - 오마샤리프

시간이 흐름수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두피와 모발. 오마샤리프가 3040을 위한 프리미엄 토탈 헤어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동성제약의 65년 두피, 모발 관리 노하우를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라인으로 전문 샵에서 케어 받은 듯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버블앤비 포밍 헤어 컬러 : 거품 세팅 염색이 도매에 강력한 일직되어 선명한 염색을 도와줍니다. 스킴프 커버 스프레이 : 대나무 송이가 함유된 순간 중화제촉촉해, 비어 있는 모발을 직접스킨과 융성시켜 케어합니다. 새치 헤어 틴트 : 특허받은 브러시기가 넓은 부위를 세밀하게 케어하며, 견한 비나 염색도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헤니 오일 바블 샴푸 : 모 주출물을 함유해 건조한 두피와 모발을 촉촉하게 가꾸어주며, 풍성하고 윤문한 가루를 보습 성분입니다. 헤어 코팅 립 : 단백질, 식물성 성분인 도매에 영양분을 전달하여 싹들에서 시술 받은 듯 윤기를 더해줍니다.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Omar Sharif PARIS

▲버블앤비 (1개 30ml, 2개 50ml / 15,000원) ▲새치 헤어 틴트 (15ml / 15,000원) ▲스킴프 커버 스프레이 (60g / 19,000원)

▼헤니 코팅 립 (250ml / 18,000원) ▲헤니 오일 바블 샴푸 (330g / 23,000원)

☎ 소비자 상담 센터 : 080-020-2200 | www.dseshop.co.kr | www.rancee.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추경호 "복합위기 직면... 물가·민생 경제 최우선 과제"

기재위 국감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커져 시나리오별 대응조치 검토 선제적 대응" 가능할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62)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외환 시장과 관련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조치를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해외의 고물가로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고 밝혔다. 이어 "거시경제 및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면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함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위기 안전판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했다. 그는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물가불안요인들도 면밀히 점검해 적기 대응하겠다"며 "서민, 중소기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에 중점을 두고 올해 세제개편안을 설계했고,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도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000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제 규제혁신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며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행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R&D 투자 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할 것이다"라면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소진기자 hoo1006@sporbiz.co.kr